

2026.02.08. 17:40

일요일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아후는 잘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말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마추어 무선놀이를 약간 했습니다. 동축 케이블 몇개를 만들고
집의 장비 배치를 바꾼 것이 전부네요.

돌아오는 주에는 부모님이 잠시 입원할 것입니다. 대장 내시경도 하고
CT도 찍고 그러려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하는 것인데, 입원하는 것 싫다고 버티셔서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일단 화요일~ 목요일 오전 퇴원인데 용종 제거
없으면 수요일 밤에라도 보내드려야겠지요. 아무튼 이번엔 별 문제
없이 잘 끝나면 처가집 식구도 날짜 확인해서 동일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월급이 ~~유급휴가~~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 나왔어야
했는데 빠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원래 약 300만원 정도 나오던
것을 생각하면 큰 돈인데, 어서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번달도 말도 안되게 많은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찾아들어야
할 때인데 아직도 살 것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이번달에도 ham에만
200만원 정도 지출을 한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쓰다간 기둥뿌리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차려야겠습니다.

사실 아마추어 무선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에는 제가 VHF/UHF
대역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도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쪽 밴드를
건드리며 BPF나 Amp.나 하는 것들을 주문하고 이것저것 추가
장비도 사게 되었으니깐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결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취미의 영역은 언제나 예측이 불가능하니
모르겠습니다. 음 제 느낌이 딱 맞네요. 오늘까지 총 2,194,000 원을

셋습니다. 아직 UHF Amp를 사지 않았고 BPF 하나의 취소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참, 이번 달에 아마존에서 책을 여러개 주문했습니다. 문장학에 대한 책인데요. 유럽 가문의 문장의 특징과 변화 그리고 각각의 의미등을 해석한 것입니다. 총 1권인데 한 권은 이상하게 주문이 되지 않아서 6권만 샀습니다. 이 책들을 다 읽고 이해하면 저도 저만의 문장을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책이 도착하고 공부하고 나서의 일이지만요.

아참 내일은 꽤나 سنگین 수술을 하나 해야합니다. 복벽 탄창도 해결하고 거기 피부에 붙어있는 소장도 떼어내고 이후 피판이식을 통해 피부도 싹 덮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선 인공복벽을 좀 쓰고 싶은데 옆에 장루가 있으니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정 안되면 *acellular matrix* 를 하나 쓰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하네요

